

연천군, 철원군과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모색..."상생 노력"

오연근 기자 입력 2021-03-18 17:47:24



겨울철 연천군 관광 백미로 지목된 신서면 경원선 페터널안에 솟아난 역고드름이 관광객을 위한 진출입로 및 편의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색에 나선다.

연천군과 철원군은 오는 27일 두 지자체를 잇는 관광발전을 위한 업무협의를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웃 지자체인 연천과 철원은 한탄강과 경원선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지리적 접근성 및 접경지역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두 지자체는 오는 2022년 말께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면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연천과 철원까지 관광객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천은 선사유적지와 한탄강댐, 재인폭포, 군남댐, 태풍 전망대, 역고드름 등 귀중한 관광자원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연천은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때문에 화살머리고지 평화의 길 사업이 중단됐지만, 철원군의 유명 관광명소로 알려진 백마고지와 노동당사, 고석정, 제2땅굴 등을 전철과 연계한 관광협력 사업 추진하고 있다.

연천은 특히 DMZ 평화의 길 테마코스인 '1.21 침투로'(철책)부터 '승전 OP'까지 철책 길을 개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신서면 신탄리 경원선 페터널 역고드름 편의시설 정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천군은 "두 지자체가 관광발전 광역화 기본 틀에 상호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발전방안이 나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양쪽 주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